

반딧불축제 화보로 만나다



군, '무주를 빛내다 사람을 비추다' 발간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축제 20주년 기념 화보집 "무주를 빛내다 사람을 비추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무주를 빛내다 사람을 비추다"는 인류화합, 웰빙희망, 지구환경보존을 실현하기 위해 1997년 첫 발을 댄 무주반딧불축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생명의 빛 반딧불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큰 꿈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발간한 것으로, "무주의 기억, 반딧불이의 추억" 이야기로 보는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1회부터 20회 축제에 대한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에피소드 등을 글로 풀어 소개하며 그 때

의 추억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무주와 반딧불, 반딧불과 사람" 키워드로 보는 무주반딧불축제 20년에서는 △자키고 가꾸다 △환경축제, △무주의 '홍' △전통놀이, △느끼고 간직하다 △체험축제, △더하고 멀다 △소득축제 등 주제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화보를 실었으며, "무주 그리고 반딧불 사람들"에서는 지난 20년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울고 웃어온 무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훈훈함을 전한다. 또 연표를 제작해 무주반딧불축제 2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무주반딧불축제 이종현 홍보지원팀장은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환경을 만들어보려고 달려왔던 지난 20년의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며 "이 책이 반딧불축제를 다녀갔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되짚는 순간이 되고, 말로만 반딧불축제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을 선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민 3명 중 1명 도서관 회원 등록

지난해말까지 2만 532명 도서관 장서수 30만4671권

완주군민 3명 중 1명 가량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해 독서의 생활화, 자기계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완주군은 지난해말까지 13개의 도서관(공공 도서관 5개, 작은 도서관 8개)에 등록된 주민은 2만5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완주군 전체 인구(2015년말 기준 9만5303명)의 31%, 군민 3명 중 1명꼴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다.

이러한 회원 증가는 도서관 장서수의 증가로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말 완주군 전체 도서관의 장서수는 30만4671권을 기록했다. 이는 군민 1인당 3.2권을 보유하는 수치로,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완주군은 독서를 통한 주민의 지식축적, 가족간 소통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서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특히 군청과 교육청 관리의 공공도서관 5개소 외에도 구이 모약, 이서 배꽃들 및 벌마루, 삼관 기차길, 소양철쭉, 삼례 대명누리꿈, 경천애인, 봉동 무궁화, 용진 용꿈 등 9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아울러 매년 10월 주민 다수가 참여

하는 '북적북적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독서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서관 연간 교육문화프로그램이 2016년 8월 기준, 200여개 프로그램에 누적 참여인원이 6,500여명으로 많은 군민들이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 확충이 군민의 도서관 등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회원 등록, 다양한 도서 열람, 문화향유를 위해 용진 등에 작은 도서관 조성, 장서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책을 가까이 하는 군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귀농교육 '인기'

귀농의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은 진안군이 초보 귀농인들과 귀농을 앞둔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8회에 걸쳐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귀농인들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갈등해결방법, 농업관련기관 업무소개, 기본영농교육,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으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각 과정별 교육시간은 영농 초보생인 교육생들의 궁금증이 넘쳐 질문이 끊이지 않아 성공적인 귀농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가 있다.

교육생 박모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전주에서 진안까지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다"며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작물에 대한 전문 교육에도 열심히 참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영화 소장은 "현재 40명 정도가 귀농준비와 정착을 위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추후 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국립돌리사



완주 봉동 렉시안 아파트 내 '어울림마당' 문 활짝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민 삶의 질 향상

완주군 봉동 렉시안 아파트 관리동 지하층에 24평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어울림마당'이 17일 문을 활짝 열었다.

이 날 개소식은 박성일 완주군수, 박재완 도의원, 이항자 완주군의회 부의장, 류영렬 군의원, 이인숙 군의원, 태치욱 입주자대표회장, 하경옥 공동체 대표(공동체명 팀북), 유민오 이장, 김복자 이장, 입주주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울림마당'은 원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나,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지원과 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 공동체, 이장, 관

리사무소 등의 노력이 더해져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현재 렉시안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요가·목공예 수업, 꽃밭 가꾸기, 어르신 음식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어울림마당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마당이 문을 연 것은 단지 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다"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대표모델이 되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무주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문화원과 무주향교, 유도회 무주지부, 무주군체육협의회,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주계음우회,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구천동관광연합회, 태권도원지원육성추진위원회, 무주군사친협회, 무주군태권도협회, (사)무주관광협회, (사)무주관광문화에술동호회 네트워크 등 무주군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개요와 일정, 주요 프

그램 등에 대해 듣고 단체별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서는 함께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내가 바로 무주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면서 발 맞춰 나가보자"고 말했다.

무주군의 소통과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22일에는 여성·자원봉사, 보건·사회복지분야, 23일에는 노동·농림 분야, 24일에는 환경과 교통·안전분야, 25일에는 국민운동, 안보·보훈 분야의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토종어류 미꾸라지 방류

장수군과 전북도민물고기시협장은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모기퇴치를 위해 17일 오전 10시 금강천과 관내하천 3개소에서 토종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무원과 강살리기장수군네트워크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명은 금강천, 반암 요천 등지에서 지역 토종어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미꾸라지 치어 24만미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미꾸라지는 민물고기시협장에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된 '미꾸라지류 대량인공 종묘 생산 방법'에 따른 양식 기술로 생산된 미꾸라지로 모기방제 효과가 뛰어난 뿐 아니라 하천에 산소를 공급해 수질개선 및 하계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작목별 테마 시협포 조성

진안군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작목별 테마 시협포를 조성한다.

이번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1만1,300㎡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억8,000만원이 투입하여 실내와 실외공간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실내공간은 원예식물관과 아열대하우스를 조성하고 실외공간은 옛날 과수원, 다랭이논과 밭, 야생화단지, 경관작물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시협포장에 인삼, 사과, 블루베리, 약초 등을 식재해 지역특화작목육성은 물론 지역농업인의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전북 시군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만이 다녀가는 곳이 아닌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도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소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과 마이스를 이용한 테마 시협포가 조성되면 군민, 관광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농업의 복합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농업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협회, 회원에 위로금 전달

전국한우협회장수군지부(지부장 육관수)는 화재로 집을 잃은 회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육관수 지부장과 회원들은 지난 7월 2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김정훈 천천면 전 한우협회장에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위로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육관수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 위해 한우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김정훈 회원이 슬픔을 이겨내고 활기를 되찾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췌, 을지연습 사전 준비보고회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17일 오전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을지연습 사전 준비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하반기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라는 국가안보 동영상을 시청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 환경을 이해하고 2016 을지연습 목표 및 주요 내용으로 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국가 총력전 연습 진행 보고와 근무지침 등 복무관리 교양 순으로 진행했다.

윤종섭 경찰서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 매년 실시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전 직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질적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